

# 칼빈에 따른 죄인으로서의 인간 (I) —인간의 타락과 죄

이오갑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칼빈에 따른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문제, 또는 죄론은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렇게 많이 연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sup>1)</sup> 칼빈의 인간학에 관한 현대 연구로서 대표적인 메리 포터 엔젤의 저술은 칼빈의 죄론을 거의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sup>2)</sup> 프랑수아 벤델이나 T. H. L 파커와 같은 대 연구자들이 그 주제를 다루었다고 해

---

1) 이제까지의 연구들로서, E. Doumergue, *Jean Calvin, l'homme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137-177.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75-85. F.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é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옮김, 《칼빈신학 입문》(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75-84. 그리고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125-132.

2) M. P. Engel,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 (Atlanta: Scholars Press, 1988).

도, 단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로 들어가기 위한 배경 또는 서론으로써 소홀하게 다루었던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 보니 그 내용도 《기독교강요》 2권에서 다루진 교리적인 범위를 별로 넘어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칼빈의 교의학적 구조 속에서는, 인간의 죄는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 전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칼빈은 죄인의 문제를 《기독교강요》 2권 그리스도론의 처음 5개 장에서 다루었다. 즉 그에게서 죄는 그리스도론에 앞 선 자리에 취급됨으로써 그리스도론의 서론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독교강요》와 함께 그의 방대한 성서주석들과 설교 등 여러 저술들을 보면, 그의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해는 매우 폭 넓고 깊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기독교강요》에서 나타나듯 단지 그리스도론의 전제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그 자체로서 다양하고 특징 있게 보여준다.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인간 또는 죄의 문제는 매우 깊이 있고, 흥미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칼빈은 인간에 대한, 특히 죄인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인간에 관한 진술은 단지 신학적이기만 할 뿐 아니라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특징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그의 인간이해가 16세기의 언어와 개념들으로써 표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현대적이기까지 하다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그의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해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준다. 그 점에서 이 주제는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더 전체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서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문제는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는 인간의 타락과 원죄, 죽음, 죄의 현상과 원인, 악한 의지, 욕망, 교만, 자기애, 소외, 불안, 단절과 고독, 고통과 절망...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서로 교대로 또는 중복되면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한다. 또한 그 문제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지면서 칼빈의 인간학 전체를 풍부하고 값 있게(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하나의 논문 안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고, 소홀히 여겨지거나 간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문제들을 다음의 세 개의 논문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과 죄”, 둘째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 그리고 자기애”, 셋째는, “죄인의 실존과 고통”이 그것이다. 지금의 이 연구는 그 첫 번째 것으로서, 현재의 죄인들의 기원이 되는 최초의 타락과 죄의 문제를 중심으로 칼빈에 따른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 II. 인간의 타락

칼빈은 성서에 따라서, 죄인으로서의 인간 문제를 첫 인류의 타락에 서부터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 후계를 포함한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았다. 즉 그는 타락을 인간운명의 대전환, 그리고 급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사건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타락을 아는 것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가 타락을 설명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것도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타락을 어떻게 말했을까?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에덴 중앙의 나무 이야기를 길게 다루면서 타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웠다. 생명나무는 영생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인간)에게 일종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하도록 했다.”<sup>3)</sup> 따라서 인간의 타락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선

악과나무였다. 즉 논점은 선악과에 놓여진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는 금지되었다. 그것이 곧 첫 인간들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하는지를 가늠해주는 척도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 인간들의 순종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순종이란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것을 자주 강조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은 계명이 아담이 어떤 과도한, 미친 욕망으로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것 대신에 자기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sup>4)</sup>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 의해 납득되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유혹이다. 순종의 참된 규칙은 우리가 명령에 단순하게 자신을 맞추는 것이고, 그분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바르고 옳다는 것을 믿는 일이다.”<sup>5)</sup>

그러므로 인간의 순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풍요, 그리고 한계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었다. 즉 첫 인간들은 금지된 나무 대신에, 허용된 온갖 나무들과 그 열매들, 그 유익들을 즐기며 만족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곧 피조물인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런 삶을 거부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금지된 것을 침범하고 말았다. 칼빈은 말한다. “하와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관대한 대접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풍족함이 충분했다고 반박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더 신중하게, 더 전심

3) *Institution*, II, 1/4.

4) *Ibid.*

5) *Commentaire, Genèse, 3;1-3, Commentaires de Jean Calvin, éd par Société Calviniste de France* (Genève: Labor et Fides, 1961-). 이하 이 주석 시리즈의 약칭은 *LEF*.



으로 그리고 더 성실하게 물리칠 수 없었다. 그들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 이상으로 욕망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풍족함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이었다.”<sup>6)</sup>

그래서 칼빈은 타락이란 다름 아닌 “참되고 올바른 질서의 전복”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의 의의 위반”<sup>7)</sup>이라고 했다. 곧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의를 위반함으로써 불순종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참된 질서를 뒤집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칼빈에 따르면, 첫 인간들의 타락에는 인간의 “과도한 미친 욕망”(folle et excessive cupidité)이 숨어 있다.<sup>8)</sup> 그 욕망은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장악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sup>9)</sup>

뿐만 아니라 첫 인간들은 모든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숨기고자 했던 것까지 알고 싶어 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칼빈은 초점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데 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 욕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대해 아는 것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던 하와는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역시 날마다 같은 질병으로 고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바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것 이상으로 알기를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의 주요점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잘 정리된 절제에 있다.”<sup>10)</sup> 즉 “선악”이라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앎”이라

6) *Ibid.*

7) *Commentaire, Genèse, 3;1, LEF, 66.*

8) *Institution, II, 1/4.*

9) *Ibid.*

10) *Commentaire, Genèse, 3;5, LEF, 70.*

는 인식의 문제이다. 그것은 타락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말해준다. 앎은 소유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한 첩경이다. 처음 인간들은 모든 것을 앎으로써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과 악의 문제까지도 앎으로써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은 단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심저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ی 되고자 한 ‘존재’의 욕망과 관련된 존재론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첫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거짓말로 파악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사탄) 처음에는 교묘하고도 입에 붙인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가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온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허풍으로써 자기를 드높인다. 마치 지금 하와의 의심으로부터 더 나가서 하나의 완전한 부인(否認)에까지 이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처럼 말이다.”<sup>11)</sup> 그는 창세기 설교에서도 말한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 열매를 욕망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일 뿐이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등을 돌렸다는 데 있습니다.”<sup>12)</sup>

이것은 첫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거짓의 구조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진실을 거짓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헤아렸고, 결국에는 거짓으로 파악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르기 위해서 진실에 등을 돌리고, 거짓을 택했으며, 결과적으로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칼빈은 인간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특히 가치

11) Commentaire, *Genèse*, 3;4, *LEF*, 69.

12) 14e Sermon sur la *Genèse*, 3;4-6, *Supplementa Calviniana*, XI1, 165.

의 질서를 뒤집어놓는 반역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지배를 피하고, 반역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탄의 꾀술에 속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무시하면서 거짓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다.”<sup>13)</sup>

칼빈은 그런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infidelité*) 또는 불신앙(*incr dulité*)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보았다. “불신이 반역의 뿌리였다. 거기로부터 야망과 교만이 초래된다.”<sup>14)</sup> 그는 공관복음서 설교에서 말한다. “모든 불신자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그 두 표현은 상호적입니다. 즉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시 말해서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는 어디나 반역만이 있을 뿐입니다.”<sup>15)</sup> 즉 인간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만의 길을 가는 반역을 행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III. 전적 타락인가, 부분적 타락인가?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부분적인 것이었을까? 주지하듯이, 교회의 신학은 인간의 타락이 전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간의 타락이 전적이라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의 신학이 강조되는 반면, 부분적이라면 인간의 도덕과 행위, 의의 가능성이 넓게 인정되는 펠라기우스적 혹은 알미니우스적인 신학이 부상된다. 즉 타락의 성격에 따라서 위로부터의 신학이나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나, 은혜의 신학이나 공로의 신학이나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제가 교회사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

13) *Institution*, II, 1/4.

14) *Ibid.*

15) 4e sermon sur l'Harmonie evangélique, *Opera Calvinii*, XLVI, 45.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칼빈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즉 그는 인간에게 그 어떤 선이나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한 그리고 철저한 타락을 주장했을까, 아니면 타락 후에도 여전히 어떤 소질이나 능력을 가진 부분적 타락을 주장했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칼빈의 저술에는 그 두 가지 종류의 타락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게 하는 글들이 공존한다. 그래서 그의 입장은 다소 불분명한 것 같이 보인다.

먼저, 전적 타락을 지지하는 칼빈을 보자. 그는 타락의 결과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한다. 즉 인간은 타락의 결과 영혼이 더럽혀졌고, 그래서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 그것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무한하게 밝음을 잃어버리고는 희미한 불꽃같이 되었을 뿐이다… 우리 영혼은 불구가 되었다. 그것은 무지에 종속되었다. 그것은 죄, 그리고 수많은 악한 욕구들에게 종속되었다.”<sup>16)</sup> 또한 창세기 설교에서도 말한다. “여기에 모든 곤궁들의 가장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타락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무지이고 엉터리일 뿐입니다.”<sup>17)</sup>

그래서 영혼이 죄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능력들, 가령 지성, 이성, 감각, 의지 등 역시 잘못되었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기능에 따르기는커녕 그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다스리거나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칼빈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올바른 지성과 이성은 우리 안에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암흑 가운데 있는 불쌍한 맹인같이 되었고, 의지는 사악한 욕망들에, 완전한 반역 가운데 예속되었으며, 악에 빠져 들어갔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죄의 학정에 억류되어 있는 불쌍한 포로들이다…”<sup>18)</sup> “여기서 우

16) 5e sermon sur le ch. 4 du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150.

17) 13e Sermon sur la Genèse, 3;1-3, *Supplementa Calviniana*, XI/1, 150.

18) “Confession de foy au nom des Eglises réformées du Rotaume de France... 1562”

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육체에 대해서만 형벌을 내리는 것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에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도, 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욕망들은 악을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를 거기로 몰고 갑니다.”<sup>19)</sup>

그리고 이제는, 부분적 타락을 지지하는 칼빈을 보자.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다. “영혼이 완전히 눈멀어서, 세상의 것에는 어떤 지식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정신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안에는 명철함의 어떤 불씨가 있어서 그는 진리에 대한 천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sup>20)</sup> 칼빈은 인간이 “진리에 대한 자연적 사랑”을 갖게 되는 그 “불씨”를 요한복음 주석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했다. “타락한 성품 가운데 남아 있는 빛에는 두 개의 주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 속에 어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선과 악의 차이가 새겨진 양심을 가지고 있다.”<sup>21)</sup> 칼빈은 그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는 데, 결국은 인간이 이성이나 영혼의 능력으로써 세계와 하나님을 성찰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사회질서를 실현하고, 문화와 종교를 창조하고 영위하는 다양하고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22)</sup>

---

Oeuvres françaises (Paris: Librairie de Charles Gosslin, 1842), 334.

19) 18e Sermon sur la Genèse, 3;17-18, *Supplementa Calviniana*, XI/1, 208.

20) *Institution*, II, 2/12.

21) *Commentaire*, Jean 1;5, *LEF*, 18.

22) Cf. *Institution*, II, 2/12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는 그 가능성이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참된 종교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 가능성은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이나 종교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아니다. 그는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주석》에서 말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열매들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종교를 미신의 수많은 괴물들로 타락시키고, 양심은 악과 덕을 혼동함으로 모든 판단을 더럽히는 것을 보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자연적 이성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다.”<sup>23)</sup> 또한 《기독교강요》에서도 말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성과 그리고 의지를 수반하는 판단력이 얼마간은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성이 너무나 나약하고 많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지에 관해서는, 그 악함과 반역이 충분히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한 이해하며 판단하는 이성은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나약하고 또 한 편으로는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형적인 잔해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sup>24)</sup>

그렇다면 칼빈이 전적 타락을 지지했느냐 아니냐에 관한 것은 쉽게 드러난다. 그는 타락 후에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등 영혼의 능력들은 더럽혀졌고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다고 보았던 것이 분명하다. 칼빈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거스틴에게서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라는 구분을 빌려오기도 했다.<sup>25)</sup> 칼빈은 자연적 은사를 이성이나 지성과 같이 영혼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초자연적 은사를 “천상의 생애와 영원한 복락에 속하는 신앙의 밝음(clarté de foi)과 온전함(int grité), 그리고 정직(droiture)” 등으로 본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타락으로써 후자는 소멸되었지만, 전자는 즉, 자연적 은사들은 남아 있다

23) Commentaire, Jean 1;5, LEF, 18.

24) Institution, II, 2/12.

25) Institution, II, 2/12.

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적 은사들에 관한 “부분적 타락”의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거기에 의존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적 은사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를 그런 상태에서 건져 줄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 지점이 바로 칼빈이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론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

#### IV. 죄

칼빈은 타락에 대해 설명한 뒤 “그 두 사람의 죄는 무엇이었는지”<sup>26)</sup>를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가 죄와 타락을 분명하게 구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들을 보면 그 둘은 구별되고 있으며, 설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가령 타락은 인간의 행위 또는 사건에 가까운 반면, 죄는 그 행위의 성격 또는 본질에 가깝다. 다른 말로는 타락은 죄를 짓는 행위이고, 죄는 타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칼빈이 죄를 첫 인간들의 타락으로부터 유추하고 설명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칼빈에 따르면,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했던 것이다. 그는 《창세기 주석》에서 말한다. “모세가 묘사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더 충분한 죄의 정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에 의해 공격받고 유혹당한 여인은 처음에 불신(*infidélité*)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러섰다. 그래서 인류의 파멸의 시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révolte*)이었다.”<sup>27)</sup> 즉 죄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

26) *Commentaire, Genèse, 3;6, LEF, 71.*

27) *Ibid.*

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을까? 그들은 왜 그의 명령을 거부했을까? 칼빈은 죄의 원인의 문제에 다가 간다. 우선, 칼빈은 죄의 원인이 어거스틴이 보았던 것 같이 “교만”이라는 데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면서도, 거리를 취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교만이 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양상, 혹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차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최소한 그는 교만이 죄의 유일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창세기 설교에서 말하는 것도 교만이 죄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만이 불신앙과 거역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는 멸망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정도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어리석은 야망과 넘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sup>28)</sup>

그렇다면 칼빈은 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까? 앞에서 본 타락의 원인과 같은 “불신” 또는 “불신앙”이 그것이었다. 그는 《창세기 주석》에서 말한다. “오직 신앙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켜 주므로, 불신이 이 반역의 뿌리이다. 거기로부터 욕망과 교만이 생겨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인이 그 뒤에는 그 남편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다.”<sup>29)</sup> “죄의 근원과 원인을 한 번 더 높은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sup>30)</sup>

그는 《기독교강요》에서도 죄의 원인이 불신앙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 역시 하나님의 지배를 피하고, 반역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탄의 꾀술에 속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진

28) 14e sermon sur la Genèse, 3;4-6, *Supplementa Calviniana*, XII/1, 166.

29) *Commentaire, Genèse*, 3;6, *LEF*, 71.

30) *Ibid.* 72. 그리고 또한 같은 쪽에서 “만일 누군가가 더 간단하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불신이 야망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이 야망은 반역의 어머니였다.”



리를 무시하면서 거짓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다.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분에게 돌려야 하는 모든 경의를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그분의 존엄은 우리 안에 존속될 수 없으며, 그분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앙은 반역의 뿌리이다.”<sup>31)</sup>

칼빈이 죄의 원인을 불신앙으로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가 죄를 인간의 어떤 행위나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 곧 인격이나 마음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것을 창세기 설교에서 잘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고, 악이 승리한 것은 아담과 이브의 인격 속에서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죄는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모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sup>32)</sup>

그런 점에서 니이젤이 칼빈에 따른 죄를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의 유기”라고<sup>33)</sup> 설명했던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적인 인격의 상태 혹은 마음의 방향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앙이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불신앙이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죄의 원인이 불신앙이란 것은 곧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떠날 때, 곧 불신앙일 때, 관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죄의 원인이 불신앙이란 것은 죄가 도덕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신앙, 그리고 두 존재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칼빈이 죄를 ‘분리’ 또는 ‘소외’와 직결시켰던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말한다. “그러나 아담의 영적 생명이 그의 창조주와 함께 결합되어 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란

31) *Institution*, II, 1/4.

32) 14e Sermon sur la Genèse, 3;4-6, *Supplementa Calviniana*, XI/1, 172.

33) W. Niesel, 79.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sup>34)</sup> “타락이 일어난 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모든 올바름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sup>35)</sup> “그런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켰기(nous en a alienez) 했기 때문입니다.”<sup>36)</sup>

## V. 죄의 결과: 죽음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칼빈은 성서에 따라서 최초의 죄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그 심판으로서, 칼빈이 집중해서 다루었던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것은 그가 죄의 결과로 죽음을 제시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적인 혹은 사실적인 죽음은 아니었다. 우선 그의 말을 들어 본다. “아담의 죽음은 범죄 이후에 즉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저주받은 생명은 죽음의 시작과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sup>37)</sup> 또한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 즉 인간은 죄와 마귀에 의해 그렇게 완전히 살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전히 생명의 일정 부분이 남아 있으며, 그래서 그는 반 쯤 밖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은 살아 있는 인간을 인정

34) *Institution*, II, 1/5.

35) *Commentaire, Genèse, préface*. LED, 21.

36) 18e Sermon sur la Genèse Du lundi 16e jour d'octobre 1559, 3;17-18, *Supplementa Calviniana*, XI/1, 208.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그 저주받을 씨앗은 항상 인류 안에 있습니다.” Sermon on the Acts of the Apostles, Du Dimanche 16e jour de novembre 1550, 7;38-42, *Supplementa Calviniana*, VIII, 47-48.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행복한 삶에 관해서는 완전하게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죽음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그는 죽음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했던 것이다.

실존적 의미에서의 죽음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고유한 존재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된 인간의 비극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죄인의 삶 자체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다”(롬 5:12)고 했듯이,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 칼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때로 죄가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점령하는 지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 전체는 마치 홍수에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으며, 그 결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당연하게 정죄되고 죄에 넘겨졌다. 성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의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그래서 죽음이다.”<sup>39)</sup> “또한 죽음의 원인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었던 것 때문이다. 거기로부터 죽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아담을 뒤덮었던 모든 비극들(*misères*)을 의미한다. 아담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마자 자신의 첫 번째 상태인 바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비참하고 버려진 것이며 따라서 죽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므로 죄 이후의 인간의 조건은 마땅히 생명의 박탈과 죽음이라고 불려져야 한다.”<sup>40)</sup>

거기서 보듯이 칼빈이 더 중시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선형적인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는 일종의 죄인들의 ‘죽음과 같은’ 인생이었다. 물론 칼빈이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37) *Commentaire, Genèse*, 3;19, *LEF*, t. I, 87.

38) *Institution*, II, 5/19.

39) *Ibid.* 1/9.

40) *Commentaire, Genèse*, 2;16, *LEF*, 55.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자연적 죽음을 말했을 때도 역시, 초점은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그 사건에 직면한 인간의 태도 또는 심리적인 움직임 같은 데 놓여진다. 칼빈은 말한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현생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구원의 희망으로부터 끊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sup>41)</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즉 사람의 몸은 죽음으로써 자연히 소멸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죽음에서 느끼는 것, 즉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의 감정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절감하게 되며, 또한 그럼으로써 참되고 진정한 생명으로 전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에게서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졌다. 그러나 칼빈은 죽음을 실존적 의미로 이해한다. 즉 인간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운명 속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소외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도,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실패와 상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의 삶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다.

41) 1er sermon sur la passion de Jésus-Christ, *Opera Calvini*, XLVI, 840.

## VI. 원죄

칼빈에 따르면, 죽음이건 혹은 죄로 인해 정죄받은 삶이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즉 그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운명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의 상황 속에 있다. 바로 거기로부터 원죄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칼빈은 그리스도교적 전통으로부터 원죄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에 따르면, 처음 사람들의 죄는 인류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운명적이다. 그래서 그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언제나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모두는 최초의 죄에 묶여 있다. 칼빈은 그 점을 자주 말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 부부로 인해서 하늘 꼭대기부터 땅 아래까지 세상의 모든 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으므로, 그 저주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게 되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sup>42)</sup> “죄를 지은 이후, 아담은 맹인같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더럽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아무 것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잘못 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전부를 우리의 미신들로써 더럽혀 놓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sup>43)</sup> 또한 창세기 설교에서도 말한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의 인격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그 독소에 몰들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사람 죄와 그의 거역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유산을 우리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가지고 나옵니다.”<sup>44)</sup> “모세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모든 것은 그 기원과 그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최초의

42) *Institution*, II, 1/5.

43) 2ème sermon sur la ch. 4 du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121.

44) 14e Sermon sur la Genèse, 3;4-6, *Supplementa Calviniana*, XI/1, 171.

조상과 그의 아내의 타락 때문입니다.”<sup>45)</sup>

그렇다면 칼빈은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원죄를 후손들의 모방으로 간주하는 펠라기우스 같은 신학자들의 사상을 배격하면서,<sup>46)</sup> 원죄를 “유전적 타락”(corruption héréditaire),<sup>47)</sup> “자연적 타락”(perversité naturelle)<sup>48)</sup> 등으로 불렀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말한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죄짓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패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이 자연적 타락(perversité)은, 비록 그것이 금방 열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분의 복수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거기로부터 원죄라는 말이 나왔다. 아담이 자신의 첫 번째 창조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은 것처럼, 타락으로써 하나님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그는 자신의 인격 속에서 부패하게 되었고 우리의 본성을 상실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었던 올바름을 박탈당함으로써 그는 자기와 같은 후손들만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자연적 부패에 잠겨있으므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더럽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sup>49)</sup> 그 원죄는 또한 1562년 “프랑스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설명되기도 했다. “우리는 원죄가 우리의 감각과 감정에 크게 퍼진 부패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올바른 지성과 이성 은 뒤집어졌고, 암흑 속에 있는 불쌍한 맹인들처럼 되었다. 그리고 의지는 모든 악한 욕정에 종속되어서, 반역으로 가득 차고, 악에 휩쓸리게 되었다.”<sup>50)</sup>

45) 13e Sermon sur la Genèse, 3;1-3, *Supplementa Calviniana*, XI/1, 151.

46) Commentaire, Genèse, 3;6, *LEF*, 73, Institution, II, 1/6.

47) *Institution*, II, 1/5.

48) Commentaire, *Romains*, 5;12, *LEF*, 125.

49) *Ibid.*

50) “Confession de foi au nom des Eglises réformées de France de 1562”, *Oeuvres françaises*, 334.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칼빈이 “자연적 타락”이라고 말할 때, 그 “자연적”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자연 조건이나 육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컨대 죄는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육체 관계에 의한 것도 아니다.<sup>51)</sup> 오히려 그 용어는 죄의 어떤 보편성, 혹은 편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어떤 인간도 죄의 그 보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한다. 인간은 어느 순간에든 죄의 지배를 받는다. 즉 그는 언제나 죄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 누구든지 인간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는 죄의 보편성과 운명성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출생 때부터 우리의 본성에 뿌리내린 질병”<sup>52)</sup>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바울이 말했듯이 “진노의 자식들”(에베 2:3)이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가 구속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거듭난다고 해도 그렇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역시 그는 평생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평생 회개해야 하는 실존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루터처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칼빈이 “유전적 타락”, 즉 원죄로써 의미하는 인간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부가해야 할 것은, 인간이 단지 원죄 때문에 죄인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인간은 원죄뿐 아니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인이다. 그는 아담의 죄로 원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다. 인간은 자신 안에 피할 수 없는 죄의 이유와 충동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인류의 조상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또한 바로 자신의 의지로써,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다.<sup>53)</sup> 그래서 칼빈에 따르면 죄는 인류의 죄면

51) *Commentaire, Genèse*, 3;6, *LEF*, 73.

52) *Commentaire, Psaumes*, 62; 8, *Commentaires sur le livre des Psaumes*, 2 vols (Paris: Meyrueis et Compagnie, 1859), t. I, 513.

서 동시에 각 개인의 죄이며, 원죄이면서도 자기의 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은 보편적 인간성에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 VII.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 본 타락과 죄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인간론을 마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칼빈에게서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 타락”과 “전적 타락”이라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칼빈의 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즉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사상이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의 능력을 통한—물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자연적 은사들이긴 하다—긍정적 인간 인식과 동시에 뿌리 깊은 오류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통한 부정적 인간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처럼 칼빈은 인간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과 문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이 지배하는 인간의 비극적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칼빈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 즉 인간이 스스로는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외부로부터 그를 끄집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용서와 구속의 은총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로, 칼빈은 타락이나 죄의 원인을 불신앙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 즉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으로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

53) Cf. *Institution*, II, 3/5 등.



는 한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공로로써도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가식이나 위선,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상승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칼빈은 그 점을 중시하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신앙뿐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즉 죄의 근원이 불신앙이므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만이 그가 죄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칼빈이 가톨릭교회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강조했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셋째, 칼빈의 죄인으로서의 인간론은, 타락과 죄의 관점에서만 볼 때도,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인간의 타락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내면의 상태를 잘 드러내 준다. 가령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참된 것으로 정당화 하는 등의 자기 합리화나 가치의 전복, 그리고 지배와 소유의 욕망, 자기 상승의 추구 등에 대한 묘사는 칼빈이 인간에 대한 관찰과 성찰이 매우 현실적이며 동시에 현대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칼빈의 그런 특징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이어지는 연구들 속에서, 특히 세 번째 “죄인의 실존과 고통” 속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넷째, 칼빈이 죽음을 사실적인 면보다는 실존적인 의미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은 첫 인간들이 장차 사실적으로 죽게 될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지금”(hic et nunc)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거기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래서 현재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재난들과 고통들, 비극들로 간주된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도 장차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 된다. 즉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느냐 믿지 않

느냐에 따라서 나의 죽음과 삶이 나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양자택일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 종말의 때이다. 칼빈의 사상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실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 주제어 |

칼빈, 인간, 죄  
(Calvin, man, sin)

---

54) Cf. 이오갑, “칼빈의 종말론,” 〈말씀과 교회〉 30 (2001), 특히 56 이하.

## 참고문헌

- 니이젤, 빌헬름/이종성 옮김.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방델, 프랑수아/김재성 옮김.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오갑. “칼빈의 종말론.” 《말씀과 교회》 30(2001).
- \_\_\_\_\_. “인간론-칼빈에 따른 창조의 빛에서 본 인간.”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조직신학 논총》 3(1998).
- \_\_\_\_\_. “Deus maiestatis와 Deus nobiscum 사이의 양극 긴장 속에 있는 인간 - 칼빈신학의 인간학적 구조.” 《신학논총》2(1996).
- 카디에, 장/이오갑 옮김.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칼빈, 존/김문제 옮김. 《기독교강요》. 서울: 세종문화사, 1974.
- 파커, T. H. L./박희석 옮김. 《칼빈신학입문》.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Calvin J.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éd. par J. Cadier, Genève, Labor et Fides, 1560.
- \_\_\_\_\_. *Commentaires de Jean Calvin*, éd par Société Calviniste de France. Genève: Labor et Fides, 1961-.
- \_\_\_\_\_. *Commentaires sur le livre des Pseaumes*, 2 vols. Paris: Meyrueis et Compagnie, 1859.
- \_\_\_\_\_.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umes. Toulouse: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 \_\_\_\_\_. *Sermons in Opera Calvini*.
- \_\_\_\_\_. *Sermons in Supplementa Calviniana*, Neukirchen, Neukirchen-Vluyn, 1936-.
- \_\_\_\_\_. “Confession de foy au nom des Eglises réformées du Rotaume de France... 1562” in *Oeuvres françaises* (Paris: Librairie de Charles

Gosslin, 1842).

Doumergue 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Dowey E. A.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4.

Engel M. P.,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 Atlanta: Scholars

Press, 1988.

Lee, Okab, *L'Anthropologie de Jean Calvin, l'homme dans la tention bi-*

*polaire entre le Deus maiestatis et le Deus nobiscum*, thèse de

Doctorat présentée à *Institut Protestant de Théologie*. Montpellier,

1992.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38.

Par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c1995.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Wendel F.,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é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 Man as sinner according to Calvin, - focused on the first men's corruption and sin

O kab Lee  
Professor  
Korea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Calvin regarded the cause of the sin as infidelity or discredit. It means that he doesn't think the sin as certain behave or appearance of man but the problem of the inner state of the man that is the heart or personality. The sin according to Calvin was not the moral problem, but the relational problem between the man and God. It is why Calvin believes that the sin is just the separation or the estrange. He doesn't doubt that the result of the sin is the death in compliance with the Bible. But his understanding of the death is existential rather than real. Namely the death resulted from the first men's sin begins not at the real moment of the future, but it is realized already 'here and now(hic et nunc)'. In this perspective, the death means every kinds of disasters, sufferings and tragedies of the mankind estranged from God. That the men overcome the death is not affair of some day but of 'here and now'. That is, my death and life diverge according to that I believe or not the Word of God, Jesus-Christ that approach me here and now. Therefore 'here and now' is the decisive time, eschatological kairos when is realized the alternative decision that I receive or not the Word of God. So Calvin's theory of sin has the existential character.